

Borouge, 에틸렌 최대 140만톤 증설

Adnoc의 천연가스전 개발 힘입어 ... 석유화학 콤플렉스 확장 프로젝트

Borealis 및 파트너기업 Abu Dhabi National Oil(Adnoc)의 60대40 합작기업인 Borouge가 아랍에미리트 Abu Dhabi의 Ruwais 소재 Borouge 석유화학 콤플렉스의 2차 확장에 들어간다.

Borouge는 Adnoc의 2개 천연가스 유전개발에 힘입어 Borouge 콤플렉스 소재 에틸렌(Ethylene) 60만톤 크래커의 생산능력을 최대 140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올해 안으로 시행여부가 결정되면 2008년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Borouge는 기존의 PE(Polyethylene) 45만톤 플랜트에 대한 13만톤 Debottlenecking 프로젝트에 4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Debottlenecking 프로젝트에는 하역장비(Material Handling Facility) 확충계획도 포함되며 2005년 2/4분기 안에 완료될 예정으로 Tecnimont가 공사를 수주했다.

PE 플랜트는 기존의 Borouge 에탄 60만톤 크래커에서 에틸렌 원료를 공급받게 되며 에틸렌 생산량 초과분은 현재 상업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Dhabi Polymers는 Olefin 및 Polyolefin 생산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코스트 효과를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Borouge 또한 세계적인 규모의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바탕으로 중동 Polyolefin 시장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bu Dhabi는 제 3단계 해안지대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및 제 2단계 아시아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2007년부터 에탄(Ethane) 추가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는 총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Condansate 및 NGL(Natural Gas Liquid) 회수시설 및 Ruwais로 연결되는 100km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포함된다.

Borouge의 싱가포르 판매지부 Borouge Pte에 따르면, 120만달러 Borouge 석유화학 콤플렉스는 풀가동 될 예정이다. Borouge의 주요 판매시장인 중동, 북동 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가 전체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디아가 70%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인디아 및 중국의 PE 수요는 연평균 각각 10%, 8-10%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중동 수요는 2010년까지 연평균 약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 및 중동 PP 시장은 PE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Borouge는 유럽에 있는 Borealis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PP만을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2/16>